

전주신흥고등학교 희현문학상 공모 참가작

신세계

1-10 백O재-

도시의 밤거리는 거인의 눈과도 같다. 중앙의 마천루들이 거세게 빛나며 원형의 빗줄기를 뿜어내고, 그 주위를 거대한 돔이 에워싼 광경은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절경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소한, 아주 사소한 결점이 있다면, 그 눈부신 빛이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거인은 눈을 감지 않는다. 사시사철 눈을 부릅뜨고 그 강렬한 눈빛을 하늘 위로 쏘아올린다.

세상 어떤 명화나 경치도 언젠간 익숙해져 '그렇구나' 하는 단편적인 감상만 남기 마련이므로, 수십년간 하루같이 발광해 온 그 빛이 더럽게 밝은 빛 공해로 몰락하고 만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었다.

하지만, 오직 나만은 그 빛을 사랑한다. 그것은 수년간 그 빛이 내게 향토적 감상을 심어준 것은 제쳐 두고도, 그것의 영원불변함과 상징성은 이 도시와 함께 가장 순수하고 지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고가 제한된 하급 시민—경찰, 기술자, 인력꾼 같은—들은 이해할 리 없는 소리이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대다수도 헛소리 취급할 것이다.

내 공상이 빚어낸 가상 독자들. 그래. 당신들 말고는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수십 문장을 단 하나로 함축시켜놓은들, 그 저자가 아니고서는 누가 알 수 있으랴.

수십 장의 장문을 단 네 문장으로 함축시켜놓고, 그 의미를 알아내라 하면 저자를 제외한 그 누가 알 수 있을까!

어쨌건 각설하고, 나는 도시의 빛을 진실로 사랑한다.

나는 그것의 순수를 사랑하고, 영원을 사랑하고,
무한을 사랑하고, 복종을 사랑하고, 동시에 유한과 몰락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제일로, 이 도시를 사랑한다.

도시의 모습은 거대한 타원의 구와도 같다.

돔과 중앙을 기준으로 나뉜 세 구역은 각각 필요와 거주자로 구별되는데, 특히 우생학적 성질이 가장 큰 예시다.

도시는 말 그대로 영원하다. 몇만일 전까지만 해도 '년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통령에 의해 연도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없어진 것이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자는 우리의 지도자인 통령밖에 없음으로.)

서론이 길었다고? 그래. 이 도시는 결론적으로 영원한 30세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별것 아닌 소리 같지만, 이것은 아주 거대한 혁신이나 다름없다.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억을 정립하는 데 아주 일가견이 있다. 모두가 3000년 12월 끝자락 어딘가에 산다는 것과, 정확히 3123년 4월 56일에 산다는 것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은 시간감각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 어차피 12월 어딘가에 있을 테니, '오늘도 시작됐구나' 하고 쉽게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 일에 충실하게 하고, 욕망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스스로 권태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에는 밤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태양마저 몰락시켰기 때문이다. 거대한 돔은 외부의 빛을 배제해 오직 인공 태양에 의존해야만 앞을 볼 수 있게 만든다. 그 거대한 황금 구체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것은 알 길이 없다. 내가 공학적 인간이 아닌 정책과 서류를 보며 펜대를 놀리는 부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도시는 늘상 밝다. 내가 보기엔 미칠 듯이 밝은 빛도 하급 시민들에게는 성냥불 취급받는데, 그것이야말로 범인 중 연구소의 가장 뛰어난 성과일 것이다. 대체 무슨 수로 흥채를 이중으로 만들었는지….

—비켜요! 비켜!

어느새 뒤통무니에 따라붙은 자동차가 클락션을 울렸다. 옆으로 물러서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더니 그 뒤를 수많은 백색 경차들이 일사불란이 쫓았다.

"거 참…."

나는 멧쩍은 마음에 혼잣말을 흘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 늙은이 같은 소리긴 하지만(육만일이 넘고는 더 세지 않았으니), 어느 면에서 요즘 것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정연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한 일관적인 취향이 그 예시다.

수백 개의 백색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경적을 울려대는 꼴이란!

아. 심지어 저차들은 집마저 하얀색이다. 고작 통령의 '흰색은 제일의 색이다'라는 주관적인 한 마디에 저렇게 바뀐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심이 더럽게 밝은 이유는 중심의 빛줄기만이 아닌, 전역에 뒹뒹인 흰색 반사광도 한 몫 차지할 것이다.

정말로, 나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나는 수십 분간 더 걸은 끝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유리 건물은 마천루라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거대했는데, 구름을 휘감은 첨탑의 꼭대기에서는 새하얀 빛줄기가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소장이 드디어 미친 건가?'

그 의문이 실로 타당한 게, 빛줄기가 외벽에 잔뜩 도배된 유리창과 끔찍한 조화를 이루며, 건물을 하나의 거대한 빛 덩어리로 만든 것이었다. 이것이 정부 치하의 연구소임을 감안하면 결코 허가해줄 리 없는 최악의 경관이였다.

열열하다시피 한 두 눈을 어루만지던 중, 어디선가 철컹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입구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건물이라니!

수십 초간 외벽을 살피며 소장이 미쳤음을 반쯤 기정사실화 한 끝에, 나는 드디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의 내부는 더욱 기괴했는데, 사방을 흰색 페인트로 도배해 놔 도통 뭐가 뭔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정신병동에나 어울릴 법한 풍경에 경악하던 찰나,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 안녕하십니까."

"떡이나 안녕하겠습니다. 건물 폴이 이게 뭐니까?"

소장은 멍쩍은 웃음을 흘리더니 천천히 앞장서 걸었다. 나는 그제야 바닥에 그려진 회백색 선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그조차 제대로 된 길을 모르는 듯 그 선을 힐끗거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불가피했습니다. 연구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소장은 두어 번 헛기침하더니 걸음을 높혔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 감춰진 흰 문을 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자. 오시죠."

따라 들어 온 내부는 생각보다 어두웠다. 증기를 뿜어대는 기계장치와 합금 재질의 벽은 냉랭하다 못해 서늘함마저 느껴질 지경이었다.

"일단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범인종 연구소에서는 우생학적 가치관에 따라 사망한 시민의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찰관께서도 아시다시피 폐기된 시민의 100%가 재생산되고 있고, DNA 단위의 행동 원리가 연구됩니다. 연간 약 일억. 일억의..."

"일억 팔천만 달러겠죠. 다 아는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요점이 뭘니까?"

소장은 멧쩍은 웃음을 짓고는 레버를 몇 번 잡아당겼다. 수백 개의 기계장치와 진공관들이 경적을 울리며 거칠게 숨쉬더니, 천장에 차가운 증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겁니다. 상당히 길어요... 일단 들어보시죠. 유전자 연구소입니다."

화면은 몇 번 점멸하더니 노이즈 섞인 영상을 송출했다.

"이곳에서는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파악하고, 각 유전자에 해당하는 발현 형질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것들—우리는 그 이상을 위해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한, 그리고 영원!"

무한과 영원.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고상하며, 결코 닿을 수 없는 이상적 존재!

독자들도 알다시피, 인간의 역사는 이를 수 없는 것을 꿈꾸는 이상의 역사였다. 하지만 무한과 영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꿈꾸며, 한 줌의 편린에 도달한 것이다.

그 결과는 혁신적이었다. 무한은 노화와 죽음을 고작 질병으로 몰락시켰고, 영원은 유한하던 자원을 무한하게 뒤바꾸었다.

약 한 알에 평생 느끼는 쾌락을 겪고, 텔로미어¹⁾와 죽음이 완전히 고리타분한 옛것 취급받는 사회라니! 그 달콤함을 맛보고도 그것을 꿈꾸지 않는 자가 남아 있으랴!

내가 탄생하자, 소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화면은 다시 한번 깜빡이더니 뻑뻑이 들어선 유리관들을 비쳤다.

"인공 배양소입니다."

소장은 팔을 펼치며 자랑하듯 말했다. 수백 개의 유리관에서 살덩어리가 몽글대는 광경은 썩 유쾌하진 않았다.

"가장 우월한 형질을 지닌 개체들로, 모든 시민의 기초 형태죠.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사고나 폐기를 통해 기존 시민이 '사망'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해당 시민의 뇌 정보를 업로드할 개체가 출하됩니다."

소장은 사망이라는 단어를 중얼거렸다. 그의 표정은 떨떠름하다는 말이 딱 어울렸는데, 독자들도 알다시피 죽음, 사망과 같은 단어들은 몇백 년 전이나 쓰이던 단어다.

차라리 대기 같은 단어를 쓰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어차피 자기 차례만 돌아오면 복원해 둔 뇌 지도와 기억을 집어넣어 옛말 그대로 '되살아날' 테니까.

뭐, 내 알 바람. 단어 선택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어쨌건, 그는 몇 번 더 그 오래된 단어를 입에 담더니 설명을 계속했다.

"시민의 등급은 무엇을 교육하고, 어떤 유전자를 제한시키냐에 따라 나뉘는데, 그 기반이 되는 유전인자는 쌍둥이처럼 매우 동일합니다. 게다가 성격이나 사상 같은 후천적 형질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완벽히 일치하죠. 다시 말해, 모든 시민의 선천적 능력은 100% 일치합니다."

"뭐, 등급 지정은 통령께서 하시지만요..." 하고 소장은 덧붙였다.

몇 걸음 지나지 않아 멈춰 섰는데. 그가 멈춘 곳에는 '특수 교육관'이라는 간략한 명판이 달려 있었다.

1) 텔로미어.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

소장은 "이곳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개체들을 교육합니다." 하고 속삭였다.

그는 매우 열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관해 설명했다.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개체들 모두가 가장 우월한 형질과 자아를 가지고 있으나, 통령께서 몸소 개발하신 신기술을 통해 그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해 목적에 적합한 시민을 생산하고, 또 '되살아날' 시민에게 적합한 육체를 제공한다는 것은 내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기계와 다를 게 뭡니까?"

나는 떠오르는 의문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다.

소장은 좋은 질문이라 감탄하며 '개체' 한 개를 가져왔다.

"아시다시피 이 개체의 신체적 나이는 2살 정도로, 성장이 계속된다면 상급 시민이 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억을 제거하고, 하이브 마인드—다시 말해, 군집지성 상태에 들어가면 완벽한 새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소장은 희뿌연 가스를 관에 가득 채워 넣고는 특수 목적으로 만든 가스며, 시냅스 속의 무의식적 기억을 제거한다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은 귀마개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목청 큰 그의 목소리조차 웅얼거리게 들릴 지경이었다.

"이게 특수교육 작업입니다. 모든 시민은 생애간 총 두 번 특수교육을 받는데, 첫째는 군집지성 상태에 돌입시켜 각인된 업무에만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 그닥 알아서 좋을 일 없겠네요."

그는 작은 레버를 조심스레 당기며 '눈 감으세요!' 하고 고함질렀다. 순간 거대한 빛이 번쩍이더니 종소리가 무자비하게 울려 퍼졌다.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빛으로 각인하고, 소리를 방아쇠로 삼아 군집지성 상태에 돌입시키면 새 시민 하나가 완성됩니다. 초기화 이후에 죽은 뇌 청사진을 입력하면 죽은 자의 의식까지 되살릴 수 있고, 각인시킬 때와 같이 빛을 보여주면 다시 재각인되어 업무 효율을 최고로 상승시킵니다. 게다가 각인 작업을 초기화한 채로 놔두면—다시 개체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시민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재각인엔 하얀 페인트도 포함됩니다."하고 소장은 웃었다.

우리는 계속해 앞으로 나아갔는데, 드디어 마지막 문에 도착할 수 있었다. 몇 명의 하급 시민들이 증기를 쉴 새 없이 뿜어대는 기계장치를 이리저리 조작하고 있었다. 소장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더니, 옆에 쌓인 초록색 알약 한 줌을 집어 들었다.

"코카나무 잎, 아스파신, 각종 환각제 등을 약하게 농축시킨 약입니다. 저희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죠."

소장은 설명했다.

"군집지성 상태에 돌입하면 도파민, 성적 쾌락, 욕망 등 다양한 감정을 생성하는 기관들이 작동하지 않는데, 저희는 그것을 쾌락을 거세한다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치 업무의 할당량으로 이 약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생산성을 최고치로 향상시키며 결핍된 쾌락을 충족시킵니다. 그들에게 일은 최고의 오락같이 여겨지죠."

"그거야말로—마약 아닙니까?"

"감찰관께서는 참 질문이 많으시군요."

소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뭐,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미덕이니까요. 인간을 닮은 기계를 생산할 수 없으니, 기계와 닮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고철 깡통들로만은 사회가 굴러갈 수 없고 자의식을 지닌 기계는 너무나도 위험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자아와 쾌락, 사고할 자유를 빼앗는 것에 무슨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자가 명령에 따르기만 하는 자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이상을 꿈꾸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래. 무한과 영원 같은 것을 꿈꾸는 자유조차 거세시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나는 알 수 없는 고양감에 뇌에서 시키는 대로 지껄었다. 문득 고개를 드니 소장이 온통 시뻘겋게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그거야말로 죄요, 오만입니다!"

소장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쳤다.

"어린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조차 없는 어린이에게 칼을 준다 생각해보시죠. 그것을 멋진 장난감이라 생각하고 이리저리 가지고 놀다 찢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를 잠시 가져간 겁니다. 이것이 죄라고요? 그들은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쾌락과 자아, 자유와 감정을 준다면 자신을 망쳐버리고 말 겁니다! 과거 무한한 자유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땅의 반이 방사능 덩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장은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그는 거세게 흥분하며,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는 듯 입술을 짓이겼다.

"그렇기에—저희는 선별적으로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주는 겁니다. 목적 없이 넘쳐흐르는 자유와 욕망, 생으로써의 의지! 그것의 규제가 없다면 도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 통령이시여! 저 불경한 자에게 지혜를! 저 자에게 자유와 이상이란 독과 같습니다! 통령이 시여! 당신의 뜻대로!"

나는 소장의 광적인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리 뒤 전등은 후광처럼 빛났고, 통령의 이름을 거둬 부르짖는 모습은 마치 고결한 순교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진실로, 통령과 그의 명령을 신처럼 믿고 있었다.

난 소장이 괴상한 애국가 따위를 찬송하며 한창 통령의 이름을 외치던 틈을 타, 조심스럽게 연구소를 빠져나갔다.

밖에선 12월 정각을 알리는 종이 여덟 번, 쳤다. 사방에 달린 패널에서는 시간의 무한화, 자원의 영구화와 같은 통령의 업적을 선전하듯 틀어 댔다.

문득 나는 뒤에서 "이것이 통령의 기적이요, 그를 향한 신앙의 증표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들은 듯한 착각에 빠졌는데, 그만큼 소장의 행동은 내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단 소리는 언젠가 들은 적 있었지만, 그 정도라니!

통령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얼굴 한번 나타낸 적 없는 그를 신처럼 여기다니. 그러면 그게 광신도랑 다를 게 뭐람.

길을 걸어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늘어선 흰 차들이 보였다. 그것들은 똑같이 달리다 똑같이 멈춰서, 똑같은 경적을 울렸는데, 전과 같은 모습임에도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저것들은 기계다."

내가, 소장이 속삭였다.

"인간을 닮은 기계, 기계를 닮은 인간. 취향조차도 선택되어 만들어진,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불쌍한 것들."

내 입을 타고 나온 소장의 생각은, 끝에서 다시 주도권을 되찾으며 뗏어졌다. 이제 소장을 떠올릴 때마다 그 광신적인 믿음보다 그를 향한 한탄과 연민이 커져만 갔다.

어쨌건, 나는 지나가는 택시 하나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소장의 감찰 평가는 어쨌냐고? 일단은 판단 유예다. 그를 판단하는 것은 그토록 좋아하는 통령께서 해 주시겠지.

피곤함을 참지 못하고 그 폭신한 의자에 몸을 뉘었다. 나무껍질처럼 불그스름한 인조 가죽에 몸이 삼켜지는 느낌을 받으며, 나는 그 경이로운 폭신함에 감탄했다. 겉은 가죽이나 속은 솜과 같다니! 통령이 이룬 제2의(알다시피 제일은 무한과 영원이다) 성과가 있다면. 이 의자일 거다. 음. 그렇고말고.

-땡땡땡! 땡땡땡!

그때, 창밖에서 종이 올랐다. 땡땡땡. 또 땡땡땡. 하고.

기차 올리는 듯한 종소리와 함께 태양이 꺼지고, 다시 켜졌다. 낡은 복합 건물의, 종탑과 시계탑의, 거대한 마천루의, 휘몰아치는 구름의 위에서 두 별이 찬란하게 춤추고 있었다. 태양과 달. 금과 은의 창백한 두 점은 하늘로 쏘아 올리는 빛을 빨아들이고 세기를 높여 빛나니, 세상에 그 자애롭고도 냉랭한 빛이 가득했다.

"저기 통령이 오신다!"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더니, 아이처럼 경쾌한 환호성을 질렀다.

"통령께서 오신다! 통령께서 오신다! 통령께서 오셨다!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만인이 하늘을 향해 소리질렀다.

그들의 외침은 끝내 종소리에 묻혔는데. 그들은 우두머리를 향해 울부짖는 짐승처럼 목청을 높이려 핏대를 세웠다.

빛이 커질수록 그들의 외침은 계속 커져갔다. 목청이 찢어질 듯이, 교향곡의 클라이맥스처럼! 땡땡땡! 땡땡땡땡!

"이게-무슨..."

나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을 금치 못하고 기사에게 물었다. 그는 미소지으며 나를 응시하더니, 속삭였다.

명령. 복종.

도시의 모습은 거대한 타원의 구와도 같다.

돔과 중앙을 기준으로 나뉜 세 구역은 각각 필요와 거주자로 구별되는데, 특히 우생학적 성질이 가장 큰 예시다.

도시는 말 그대로 영원하다. 몇만일 전까지만 해도 '년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통령에 의해 연도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없어진 것이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자는 우리의 지도자인 통령밖에 없음으로.)

서론이 길었다고? 그래. 이 도시는 결론적으로 영원한 30세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별것 아닌 소리 같지만, 이것은 아주 거대한 혁신이나 다름없다.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억을 정립하는 데 아주 일가견이 있다. 모두가 3000년 12월 끝자락 어딘가에 산다는 것과, 정확히 3123년 4월 56일에 산다는 것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은 시간감각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 어차피 12월 어딘가에 있을 테니, '오늘도 시작됐구나' 하고 쉽게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 일에 충실하게 하고, 욕망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스스로 권태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에는 밤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태양마저 몰락시켰기 때문이다. 거대한 돔은 외부의 빛을 배제해 오직 인공 태양에 의존해야만 앞을 볼 수 있게 만든다. 그 거대한 황금 구체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것은 알 길이 없다. 내가 공학적 인간이 아닌 정책과 서류를 보며 펜대를 놀리는 부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도시는 늘상 밝다. 내가 보기엔 미칠 듯이 밝은 빛도 하급 시민들에게는 성냥불 취급받는데, 그것이야말로 범인 중 연구소의 가장 뛰어난 성과일 것이다. 대체 무슨 수로 흥채를 이중으로 만들었는지….

—비켜요! 비켜!

어느새 뒤편무늬에 따라붙은 자동차가 클락션을 울렸다. 옆으로 물러서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더니 그 뒤를 수많은 백색 경차들이 일사불란이 쫓았다.

"거 참…."

나는 멧쩍은 마음에 혼잣말을 흘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 늙은이 같은 소리긴 하지만(육만일이 넘고는 더 세지 않았으니), 어느 면에서 요즘 것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정연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한 일관적인 취향이 그 예시다.

수백 개의 백색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경적을 울려대는 꼴이란!

아. 심지어 저차들은 집마저 하얀색이다. 고작 통령의 '흰색은 제일의 색이다'라는 주관적인 한 마디에 저렇게 바뀐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심이 더럽게 밝은 이유는 중심의 빛줄기만이 아닌, 전역에 뒤덮인 흰색 반사광도 한 몫 차지할 것이다.

정말로, 나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나는 수십 분간 더 걸은 끝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유리 건물은 마천루라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거대했는데, 구름을 휘감은 첨탑의 꼭대기에서는 새하얀 빛줄기가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소장이 드디어 미친 건가?'

그 의문이 실로 타당한 게, 빛줄기가 외벽에 잔뜩 도배된 유리창과 끔찍한 조화를 이루며, 건물을 하나의 거대한 빛 덩어리로 만든 것이었다. 이것이 정부 치하의 연구소임을 감안하면 결코 허가해줄 리 없는 최악의 경관이였다.

이걸 언젠가 본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였지. 분명히 이러다 문이 열렸던 것 같은데,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지끈거리는 이마를 어루만지던 중, 어디선가 철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분명 철컹하며 문이 열렸었지. 위치는 모르겠지만.

수십 초간 외벽을 살피며 소장이 미쳤음을 반쯤 기정사실화 한 끝에, 나는 드디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의 내부는 더욱 기괴했는데, 사방을 흰색 페인트로 도배해 놔 도통 뭐가 뭔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정신병동에나 어울릴 법한 풍경에 경악하던 찰나,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 안녕하십니까."

"떡이나 안녕하겠습니다. 건물 꼴이 이게 뭐니까?"

소장은 멍쩍게 웃으며 천천히 앞장서 걸었다. 나는 그제야 바닥에 그려진 회백색 선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그조차 제대로 된 길을 모르는 듯 그 선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불가피했습니다. 연구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일이어서요."

우리는 멍하니 그를 응시했다.

"전에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만난 적 있었나요?"

소장이 우리 둘에게 되물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일단 오시죠."

소장이 걸음을 옮기며 말이 끊겼다.

따라 들어 온 내부는 어딘가 익숙하고 불쾌했는데. 증기를 뿜어대는 기계장치와 합금 재질의 벽은 냉랭하다 못해 서늘함마저 느껴질 지경이었다.

"일단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범인종 연구소에서는 우생학적 가치관에 따라 사망한 시민의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찰관께서도 아시다시피 폐기된 시민의 100%가 재생산되고 있고, DNA 단위의 행동 원리가 연구됩니다. 연간 약 일억. 일억의..."

"일억 팔천만 달러.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우리 최근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뇨. 무슨 말인지."

소장은 멀뚱히 우리 둘을 바라봤다.

그럴 리 없는데. 최근 그를 만난 기억은 분명하다. 전에도 여기서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다만 그게 언제였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

소장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레버를 몇 번 잡아당겼다. 수백 개의 기계장치와 진공관들이 경적을 울리며 거칠게 숨쉬더니, 천장에 차가운 증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유전자 연구소입니다."

화면은 몇 번 황금빛으로 점멸했다.

"이곳에서는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파악하고, 각 유전자에 해당하는 발현 형질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것들—우리는 그 이상을 위해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반응을 원한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와 그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난 머리 깊은 곳에서 전류가 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상. 이상. 이상... 그래. 이상! 무한과 영원! 내가 이것 왜 잊고 있었지!"

나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우리 셋은 분명히 만난 적 있다. 그것도 하루도 채 되기 전에!

난 황급히 소장을 돌아봤다. 그는 미소지으며, 기계처럼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땡땡땡. 땡땡땡...

어디선가 종이 찢다. 째디 째디 정오의 끝을 알리는 경종-輕鐘-이, 이 알 수 없는 기시감을 알리는 경종-警鐘-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땡땡땡. 땡땡땡. 옆에서 누군가 외쳤다. 종 치는 소리로. 땡땡땡. 하고. 땡땡땡...

"무엇이 주인과 노예를, 짐승과 사람을 구분짓는가."

정책부 지하에서부터 온 그 목소리와 함께, 방은 물안개로 가득 찼다. 우리 셋은 소리의 근원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군청빛 바다가 우주에서 파도쳤다.

그것은 철썹같이 어두워 사방에 짙은 바다내음만이 가득했다. 해초와 이끼에 뒤덮인 아폴론 14호는 바위에 걸친 채로 아슬아슬하게 흔들거렸다. 거대한 리바이어던은 푸른 별 무리를 집어삼키고 해류 사이로 사라지며. 땡땡땡. 하고 외쳤다. 수많은 유성우가 파도를 따라 철썹이며, 깊이, 더 깊은 심해 속으로 파묻히고 있었다.

해일이 짙은 안개와 함께 일렁였다. 그 부서지는 물보라를 따라가니, 'NASA'라 적힌 합금 파편들이 파도를 따라 출렁이며 두 소용돌이로. 황홀하게 빛나는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빨려가고 있었다. 땡땡땡. 땡땡땡...

"꿈과 이상. 그것을 향한 복종.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본질이다. 보라. 무한과 영원을 향해!"

그 밝은 빛줄기의 시작엔, 종 모양의 찬란한 쌍성이 고고히 빛나고 있었다.

황금 태양과 수은빛 달. 이상과 현실. 무한과 영원.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두 존재가!

땡땡땡. 종이 울린다.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땡!

명령. 복종----- - --- - --..... ...

한 노인이 광활한 사막을 걷는다. 황금빛 모래알이 그의 앙상한 걸음을 스치고 흘러가며,
자박자박. 자박자박. 쓰러뺨은 발자국이 움푹 남았다 바람에 부딪혀 아스러진다.

노인은 모래산 정상에서 금상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늘은 먹칠한 듯 어둡고 어두워,
검푸른 은하수만이 잔잔히 흐른다. 땡땡. 땡땡. 땡땡...

-신이시여. 말해주시오. 이 긴 시련의 끝에 무엇이 있소? 신과 같은 오뒷세우스처럼 아무리
발버둥쳐도 운명에 종속된 것이오?

대체 이 모든 여정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오? 크로노스의 아들께서도 운명의 세 여신에게는
벗어날 수 없었고, 뉴턴도, 갈릴레이도, 그 어떤 선각자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소. 우리는
그저 운명의 장난에서 발버둥 치는 장깃말에 불과한 건가요? 지혜로운 코린토스의 군주 시시
포스여! 나는 두려움에 떨리는 몸을 멈출 수 없소! 내 운명이라는 것은 당신의 돌과 시련과
같이 끝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오. 아아. 대체 인간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한단 것인가!

노인은 외치고 기도한다. 종소리 성가 삼고, 빛나는 황금상에 두려움과 경외 담아 몸 굽혀 절
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지혜가 자신의 늙은 영혼을 굽어살피길 기도한다.

별은 한없이 흐른다. 노인이 엎드려 숨죽이는 동안 계속해 흐르며 광활한 대지를 냉랭히 비춘
다. 황금상은 모래바람에 부딪혀 부서진 지 오래로, 노인도 모르게 찬양 나오던 그 신성한 형
상은 녹슨 뼈대만이 건조하게 바람에 흔들린다.

모래만이 가득하던 사막은 묘비와 뿔가루로 뒤덮였고, 대지에 넘쳐흐르던 생명은 싸늘하게 얼
어붙어 녹슨 죽음만이 가득하니.

노인은 찬송을 멈춘다.

"우리는 삼천년간 기다렸소.
가이아의 자손들의 산과 같은 심판이 두려웠고,
천당에 열 개 율법으로 새겨진 단죄가 두려웠고,
변화하고 역동하는 사상들이 두려웠고,
예정된 운명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대지를 바라보며 외친다. 구원을 기다리고, 초인을 기다리고, 지도자를 기다리고. 신을
기다렸음에도.

"그러나 응답은 없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기에.

"하늘에 정의 없고, 대지에 도덕 없으니.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운명이라는 것은 칠흑과도 같아 길이 보이지 않으니. 아. 신이시여."

노인의 눈에서 황금빛 모래바람이 휘몰아친다. 비굴하게 구부러진 허리 곧추세우며, 그 백발의 머리칼엔 백연白煙의 가시관이 일렁인다.

"만일, 진실로 신이 없다면.
저 광활한 우주에 완벽한 정의 하나 없다면."

노인은 일어나 외친다. 검푸른 은하수에서 두 개의 쌍둥이 별이 찬란히. 찬란히 대지에 떨어진다. 저 북쪽 고원에서 불어온 황금빛 바람을 바라보며. 땡땡땡. 땡땡땡..

"우리가 믿고 향할 것은 이상 하나밖에 없으리."

-1장 1절. 태초에 통령께서 "신 있으라" 하니 옛 신들을 파괴하고 쌍둥이 신이 탄생했으니, 그 이름은 무한과 영원이요, 이상을 따르는 발판이라.-

도시의 모습은 거대한 타원의 구와도…
아니. 다른 말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특정한 경험은 사람을 바뀌는 계기가 된다.

무함마드에게는 발작인지 예언인지 알 수 없는 천사를 본 경험이 그랬고, 공산주의자들에게엔 마르크스의 사상이 그랬을 테지.

내게는 하룻밤 사이에 겪은 한 몽중몽이 그랬다.

무언가를 겪은 느낌은 있으나 기억은 없다. 그 원인 모를 상실감과 고양감은 실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스위치를 켜고 끄길 반복했다. 두 개의 낡은 전구는 밝게 빛나며 방 안을 가득 비추더니,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사그라들며 새빨간 필라멘트의 열기만을 남겼다.

"통령이시여. 우리에게 무한과 영원을.."

나는 본능적으로 중얼이며 밖으로 향했다. 매일같이 창문을 바라보며 느끼던 저 밝은 빛을 향한 애증의 감정도 전구처럼 식어, 아무런 감상도 느껴지지 않았다.

길거리 사방에서는 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선전보들이 들려 왔는데, "통령께서 우리를 이상에 데려다주실 겁니다." 하는 선언적 어조의 말을 들을수록 내 정신이 끈적한 무언가로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 비유하자면 삼투다. 정신의 삼투. 내 독자들은 잘 이해했겠지. 음. 그렇고말고.

나는 호주머니를 뒤져 초록색 알약 한 알을 삼켰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내 머리를 기분 좋게 쓰다듬고, 헤집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늘따라 약효가 잘 받는지, 평소처럼(기억상으로) 느끼던 감각적인 쾌락과 고양감뿐만이 아닌, 거대한 성적 쾌락도 느껴졌는데. 그야말로 쾌락과 쾌락의 연쇄였다.

지금 그 질퍽한 회백색 단백질 덩어리(이상한 생각은 마라. 뇌를 말하는 것이다.)를 꺼내서 확인해 보면, 분명 전두엽부터 측두엽 모두가 달콤한 쾌락으로 자극되어 있겠지. 벤담이 살아있다면 이곳이야말로 지상낙원이라고 외쳤을 것이 틀림없다.

나는 순수한 쾌감을 느끼며 계속해 걸었다. 오늘따라 일렬의 차들도, 심지어 연구소와 하늘에 가득한 흰 빛줄기까지도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내게 한 단어를 상기시켜 줬다.

"상실."

맞아. 상실. 그 단어의 이름이 상실이었지. 그렇다면, 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상실한 거지?

뭐, 어찌 되든 좋았다. 내게 초록 알약과 따를 명령만 있다면!

약 13분—도심 중앙의 시계탑에 따르면—이 지나고, 이 목적지 없는 방향의 종착지에 다다랐는데. 그곳은 강철의 새들이 날아들고 떠나는 작은 바위와도...

아니. 그냥 항공이었다. 수십의 비행기들이 잠시 정체했다 날아가는 항공.

내가 상상했던 것은 사방에서 증기를 뿜어내며, 새와 같은 비행기들이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꿈과 같은 광경이었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상당했다.

그곳에서는 비행기 하나에 각각 부품들을 담당하는 열 명의 사람을 옥여넣었는데, 그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감옥 안에서 애처롭게 바라보는 죄수같이 느껴져 약간의 동정심마저 느껴질 지경이었다.

"오. 통령이시여..."

나는 작은 비애 섞인 한탄을 내뿜었다.

그들의 눈은 불 꺼진 전구와도 같아, 생기 대신 필라멘트와 같은 잔열만이 느껴졌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다. 반사적으로 뒤를 바라보니 한 남자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비행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무엇이요?"

"저 비행기의 탐스러운 기체와, 엔진과, 인간과. 그리고 그중 제일로 통령께서 주신 이 기적이!"

"뭐...그러시겠죠."

남자는 '오. 통령이시여!' 하고 외치더니 통령을 향한 수많은 헌사곡 중 하나를 기쁘게 불렀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았다.

오. 통령이시여.

우리의 선각자. 우리의 지도자. 수천년간 그 빛을 잃지 않은 영원한 빛이여.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네. 우리에게 무한을 약속하셨네. 이 소돔을 떠나, 은하수 속의 에덴과 유토피아로!

오. 통령이시여!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무한한 보편과 절대의 진보를! 우리에게 영원을!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리며, 나는 본능적으로 함께 탄성하고, 통령을 찬양하고픈 욕망에 휩싸였다.

'오. 통령이시여' 하는 구절이 내 입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통령이시여.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오. 통령이시여 내 모든 것을 바칠 테니, 나에게 따를 길과 그 초록색 기적을 주소서.
아—멘.'

나는 통령을 향해 조아리고 싶은 본능을 억지로 억누르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통령은 완벽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다. 만인을, 모든 지식, 정책, 이상이, 모든 지혜가 그에게서 나온다. 정책부에서 '통령이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면 우리는 통령의 현안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통령을 본 자는 없다. 그 존재가 허상인지, 실존하는 것인지조차 알 길이 없다. 정책부에서 매 기념일마다 통령의 연설이라며 노이즈 섞인 음성을 송출하긴 하지만, 이질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어쩌면, 통령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오직 그가 일으킨 거대한 진보만이 명확할 뿐.....

아. 내가 무슨 생각을!

깊은 사색의 반복이 끝나며, 나는 내가 무슨 결론을 내렸는지 자각하고야 말았다.

통령. 그 신과 같은 이를 스스로 모욕하고 신기루처럼 치부하다니. 이 얼마나 큰 죄란 말인가!

언제부턴가 나는 소장처럼 아주 충동적이기 짝이 없는 인간으로 변했는데, 바로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통령께서는 '그 또한 진보의 결과다'라며 긍정하시겠지만, 지식인이자 관리인 '상급 시민'으로써 그렇게 행동하다니! 그야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분명...

"무슨 생각 하십니까?"

남자는 의심스럽다는 듯한 눈초리로 우리를 흘겨봤다.

"스스로를, 나의 지혜를, 통령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것이야말로 미덕이죠. 끝없는 진보를 위한 회의!"

그는 감탄하며 낄낄댔다.

"당신은 통령을 사랑하니까?"

"사랑할 뿐이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이상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유? 이성? 저는 그것들을 포기했고, 가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약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 기만 한다면!"

나는 문득, 통령을 향한 충성보다 이유 모를 불쾌함과 기시감이 강해짐을 느꼈다.

통령은 저들에게 이상과 꿈을 가르치지 않았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 복종이지, 이성과 자유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통령의 이상의 결과가 뭐란 말인가?

그는 계속해서 지껄였다.

"이 모든 활동이, 고작 세포 수준으로 미약하고 작은 인간이 도시라는 거인을 무한과 영원으로, 이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없어도?"

"이름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그는 되물었다.

"몇 백 년 전까지는 이름이라는 게 존재했었죠. 천박하고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고, 통령께서는 그것을 일련번호와 직책으로 대신했습니다. 제게 배정된 27011이라는 숫자로! 어쨌건, 자유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후대엔 그 무가치가 들어나겠죠. 통령의 선구안과 지혜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으니!"

나는 그의 말을 부정하고픈 충동이 일어났다.

저 27011번째 인간을 부정하고, 그의 사상을 부정하고, 상실을 되찾고 싶은 간절한 충동이.

"그러면. 그러면 당신이 꿈꾸는 이상이란 대체 뭡니까? 대체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통령의 뜻이고. 그곳에 있으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무한과 영원으로 데려다 주실 겁니다! 저 무한한 빛처럼!"

남자는 답하고는 초록 알약을 삼키며. 경박하고도 일그러진, 쾌락에 절여진 표정을 지으며 기쁜 목소리로 "아아아—"하고 외쳤다.

- 아아아—. 아아아! -통령 만세!

그의 머리는 어느 순간부터 빛나는 전구로 변해 있었다. 그의 쾌락 섞인 탄성은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하는 소리가 되어. 땡땡땡 하고. 경종을 울렸다.

사방의 인간들이, 비행기의 인간들이, 도시의 인간들이 그랬다. 그들의 머릿속 필라멘트는 섯노랗게 빛나며 자신을 뜨겁게, 뜨겁게 불태웠다.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태양과 달. 그 쌍둥이 별이. 전구처럼 빛나는 두 흥성이 빛나고 있었다. 땡땡땡. 땡땡땡. 더 빠르게 치며. 땡땡땡땡땡!

"내가 상실한 것은..."

우리는 그 종소리 속에서 홀로 외쳤다. 저 빛무리와 이상 속에서 내가 상실한 것은 무엇이지?

두 별이 동시에 빛나는 순간. 나는 내 뇌의 뉴런들이 불타며 시냅스 사이에서 스파크가 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모든 예술가와 철학자들이 그랬듯, 그것은 거대한 통찰이고, 영감이었다.

내가 상실한 것은. 상실한 것은...!

"내가 상실한 것은 이상이다! 스스로의 이상을 잃어버렸다!"

내 시야가 부서졌다.

돔이 산산조각 나고 거대한 유리조각들이 하늘에서 낙하하며, 미지근한 수은 가스와 삼투로 변질된 뇌척수액이 시야의 균열 사이에서 새어 나왔다.

수십, 수백만의 전구들이 비추는 불빛. 그것이 도시를 비추는 영원한 빛의 정체였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전구였고, 그 불빛들이 거대한 필라멘트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완벽한 영원과 무한? 그런 게 있을 리가!

나는 내 머리를 더듬었다. 뇌가 있어야 할 자리엔 꺼진 필라멘트가, 차게 식은 필라멘트와 깨진 유리 조각만 만져졌다. 내 안에 들어있던 것은 위대한 의지가 아닌. 다 빠져나간 가스와 체액, 그리고 필라멘트의 불빛이 전부였다.

-“이상을. 무한과 영원을 향해 지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통령이 말했다. 살아있는 이상이 말했다. 현존하는 영원이 말했다. 도덕이자 정의가 말했다. 항상 내 옆에서 함께하던 제 3인류가 말했다.

"탐욕이다. 정체 그 자체인 영원. 진보 그 자체인 무한. 그 양립할 수 없는 존재를 동시에 가지고자 하는 끝없는 탐욕. 그것만이 우리를 이상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땡땡땡. 땡땡땡. 종이 울린다. 이상을 향한 무한한 투쟁. 그 승전보를 알리는 승리의 종이. 끝없는 탐욕의 종이. 땡땡땡. 땡땡땡.

"너는 우리에게 이성과 오성을 줬고, 우리는 너에게 무한과 영원을 선사했다. 계약에 따르고 복종하라."

통령은 이성의 잔열이 남은 뇌를 펴 올리며 외친다.

-이것이 우리의 신, 이것이 우리의 이상!

"끝없는 욕망. 그리고 파멸. 나는 인간의 유한함을 부정하겠다. 너희 모두를 이상으로 데려다 줄 테니, 명령에 복종하라! 무한과 영원의 도시가 여기에 오리!"

시대정신이 움직인다!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땡!

-명령, 복종—————.....

달콤한 쾌락은 뇌척수액에 스며들어 우리의 뇌를 절인다.

그것은 뇌의 삼투다. 순수성이 낮은 뇌는 채액 대신 쾌락에 절여져 판단과 이성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꿈을 지닌 인간은 다르다.

뇌의 삼투. 순수한 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에 쉽게 스며든다.

이상과 꿈의 농도는 그야말로 순수한 결정과도 같아. 채액, 그리고 쾌락과 비교해도 제일의 농도를 자랑한다.

그렇게 꿈을 한번 꾸기 시작한 자는 평생 꿈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나 또한 그랬다.

상실한 이상을 되찾은 후부터. 나는 내 집 지하에 박혀 수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모든 법과 도덕이 정의롭고, 빈곤과 기아, 정체와 생명이 극복된 세계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벽한 도시의 청사진과 내 안에서 반짝이는 진리는 점점 뚜렷해지고, 부풀어 올랐다.

이상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몇일 지나지 않아, 나는 짧고도 긴 지하의 시간을 뒤로 하고 도시로 나섰다.

3일만에 본 도시의 전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도시에는 그 어떤 특별한 것도 없었다. 꿈꾸던 빛나는 진리도, 무한과 영원도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 있던 것의 현실이란 말인가! 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그것들은 고귀하지도 않았고, 고결하지도 않았다. 명령에 복종하며 기계처럼 따를 뿐이었다.

육체는 무한하나 정신은 유한한 것이 살아 숨쉬며, 자신들의 복제품을 찍어내고 있었고, 그렇게 찬송하던 과학기술은 우주에도 도달하지 못해 고작 이 좁은 푸른 별에 갇혀 있었다.

내가 상상하던 미개한 1984년의 시민들을 정복하는 신세계의 시민이, 완벽한 진리를 향해 찬양하는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달이 새겨진 6펜스를 튕기는 한 괴인이 순식간에 풍선 터지듯 사라졌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창피함마저 느꼈다. 소장. 그 멍청한 광신자를 고결한 성인처럼 여겼다니!

현재의 결핍이 느껴질수록, 내가 꿈꾸던 이상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해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었고, 해결한 수단도 가지고 있었다.

콜트 45.통령이 혁명을 일으키며 사용했다는 상징적인 권총. 낡았다지만 통령의 썩은 뇌에 총알을 박아 넣기엔 충분하겠지.

나는 곧장 정책부로 향했다.

통령의 목소리의 근원지이던 그 곳은, 찬란한 백색 빛줄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곳이 맞기는 한가? 아냐. 이 곳 말고는 그자가 있을 곳이 없지.

나는 피어오르는 두려움과 의심을 억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피차하면 총을 갈기기 위해 잔뜩 예민해진 나와는 달리, 정책부의 안은 평화롭기 짝이 없었다.

몇몇 하급 시민들이 카운터에서 업무를 정리하며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겼고, 판단력이 존재하는 중급 시민들은 인이어에서 나오는 지시에 따라 이리저리 오갔다.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멍하니 서있던 찰나, 한 중급 시민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내게 달려왔다.

"혹시 1042번 분 맞으십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혹시 1042번 분 맞으십니까?"

그는 기계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말하자면- 그래. 인간성이 온통 빠져나가기라도 한 듯 메말라 보였다.

그 끈질긴 질문에 마지못해 끄덕이자, 그는 "통령께서 아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는 나를 이끌었다.

잠깐, 통령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체 무슨 수로?

당혹스러운 신음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내가 그를 죽이러 찾아올 것조차 이미 알고 있었다니, 통령은 정말 신이라도 되는 건가?

어쨌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통령의 의도대로 따르는 것 밖에 없었다.

나는 불길할 정도로 친절な 안내를 받으며, 지하로 향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끼와 곰팡이의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공기 자체가 점점 습해지고 있었다.

몸에 응결된 물방울을 몇 번 닦아내고, 정책부의 문을 열었다. 축축하기 짝이 없는 대기가 먼저 날 반겼고, 죽은 것 마냥 눈이 흐리멍덩한 직원들이 각종 기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총을 들고(상식적으로 총은 불법이다.)주변을 배회함에도 내게 신경을 기울이는 아무도 없었고, 일부러 말을 걸었음에도 귀가 먼 것 마냥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부의 산하기관 치고는 정말 괴상한 광경이었고,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상급 시민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내 오만한 편견을 깨트려주는 장면이었다.

그래. 말하자면 바다 속에 잠긴 거대한 납골당처럼 느껴졌다. 거대한 바다 속 시체굴 말이다.

"여기선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안내원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왜? 망자에게 예우라도 지키라는 건가?"

난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안내원은 무슨 헛소리 하나는 표정으로 날 응시했다.

그래. 썩 좋은 대답은 아니었지.

"저분들은 통령께서 직접 맡기신 업무를 수행하는 '상급' 시민입니다. 당연히 방해해서 좋을 일 없죠."

"저게 상급 시민이라고? 하급이 아니라?"

"상급과 하급을 구분하는 구분은 복종의 정도, 그리고 통제수단입니다. 이성이나 판단력은 부가적인 요소고요."

그는 무덤덤하게 대꾸하고 떠났다. 방 안은 거친 증기기관 숨소리로 가득해, 천장엔 물방울이 계속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내 위로 떨어지는 물을 피해 앞으로 걸었다. 머지않아 '출입 금지'라 쓰인 거대한 문이 보였는데, 그것을 빛으로 뒤덮을 만큼의 섬광과 습기가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난 본능적으로 이곳에 통령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빛 속에서 뭘 하는 거지?

뭐, 여기까지 온 이상 돌이킬 순 없었다.

방 안은 진공관으로 가득했다. 관의 안에서는 찬란한 빛이 번쩍였고, 방의 중심에서는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가 들려 왔다.

나는 먼지 쌓인 진공관 하나를 들어올렸다.

27011이라고 적힌 유리 안에는, 전선과 연결된 뇌가 박제된 채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역겹기 짝이 없군. 이게 그 빛의 근원지라니!

난 통령의 기괴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며, 그것에 연결된 전선을 따라갔다. 그 끝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검은 베일에 덮혀 거칠게 숨쉬고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 바로 쓸 각오를 하고, 총구를 겨눈 채로 베일을 뒤집었다.

"이건 에니악이잖아!"

천이백년 전 기계가 왜 여기에!

나는 혼란에 휩싸여 방아쇠를 당기지도 못한 채 겨누고만 있었다. 에니악은 계속해서 뿌연 증기를 뿜어내며, 거친 호흡을 반복했다.

잠깐, 그렇다면 통령은 어딘에 있지?

"사람은 무엇으로 살며."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총을 쏘으나, 쇠 맞는 소리가 나며 튕겨졌다.

그는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는데, 피부는 실리콘과 세라믹이자 관절은 피스톤이요. 심장은 영구기관이었다. 모습은 인간이었지만, 그 본질은 감출 수 없었다.

방 안에 있는 것은 수천의 유리관. 그것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계. 인간보다 탐욕스럽고, 인간보다 인간같은 존재!

그것이 통령의 정체였다.

"무엇이 노예와 주인을, 인간과 짐승을 구분 짓겠습니까?"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다시 통령의 입에서 울렸다.

"꿈. 그것은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이성을 얻고 더 위대한 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상을 꿈꾸고, 더 나은 것을 꿈꾸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시죠. 당신을 위한 선물이 가득합니다. 누구보다 높은 지위, 부와 명예, 넘치는 재물, 영원하고도 무한한 생명……"

통령은 뱀과 같이 속삭였다.

"그 대가는?"

"자아와 이름, 죽음과 고통, 꿈과 이상, 과거와 미래, 그리고, 자유와 이성."

총을 쏜 손이 풀리며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내 심장 안에서 빛나는 이상이 나를 멈춰 세웠다.

"삼일 간 생각해봤네. 나는 나야. 네게 복종하는 기계가 아니지. 무한한 노예의 삶을 살 바엔, 유한을 살겠어."

총알이 허공을 갈랐다.

통령은 힘없이 떨어지는 쇳덩어리를 바라보더니 손을 들어올리며 외쳤다.

"빛은 융합으로부터 태어난다. 네 입자가 하나되며 생겨난 결핍. 그것이 빛의 근원이다. 이상 또한 같아, 꿈꾸는 사람은 스스로를 장작 삼아 불태워 무언가를 상실한 후에야 그것에 닿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결핍 없는 꿈을 원한다면 무엇을 태워야 하는가? 영원과 무한.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이상을 꿈꾼다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

통령의 말은 허황되었나, 역설적이게도 현실적이었다. 영생과 젊음. 무한과 영원. 정체와 진보. 그것들이야말로 그동안 모두가 누려 왔던게 아니던가.

나는 물었다.

"영원한 시대, 무한한 시간.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두 이상. 그것이 너의 꿈이라는 건가?"

통령은 정색하며 답했다.

"사람의 모든 고통은 유한성과 필연성에서 태어난다. 자원, 행복, 부, 시간, 그리고 신체의 유한함. 그것이야말로 최악이요, 우리가 제거해야 할 필연성이다. 고작 부스러기를 맛보고 우리가 만족할 것 같은가? 우리의 이상이야말로 저 하늘 끝에 있다."

"하늘이라고?"

통령은 침묵으로 답했다. 숨죽여 빛나던 진공관 속 뇌들이 포르말린과 함께 뒤섞여 발광하며, 일몰 직전의 태양마냥 사방에 황금빛 열기를 흩뿌렸다.

"사람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유한과 운명에 대항하지 않고 피해야 하는 것인가?

세상에 무한과 영원이 없다면, 시간의 타류 끝이 몰락과 허무에 불과하다면."

그가 두 손을 모아올리니,

"내 영혼을 팔아 미래를 사겠다."

두 별이 그의 손아귀 안에서 태어났다.

황금과 수은. 하나될 수 없는 두 빛이 그의 손아귀 사이에서 흘러내리자 무채색의 세상에 영구기관의 전류가 피어올랐다.

순간, 땅이 경적을 울렸다. 알수 없는 진동에 당황해 서 있자, 지하가 통째로 뜯겨져 날아올랐다.

도시는 말 그대로 떠오르고 있었다.

연료를 얻은 수만의 증기기관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수증기를 내뿜었다. 전구 인간들은 기쁨으로 비명지르며 더욱 빛나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웠다.

"비상은 인간의 원초적인 이상이다. 더 높은 지위로, 더 높은 한계로. 하다못해 육신이라도 새와 같이 날기 위해 만든 것이 비행기였다. 보라. 우리는 지금 날고 있다! 저 별들을, 끝없는 별들을 향해서. 피안의 문이 저 하늘 끝에 있다."

(환호성! 그리고 박수!)

"날자. 날자. 날자. 저 하늘을 향해 비상하자. 우리는 마지막 존재의 유한성마저 극복했다! 내 손을 잡아라. 유토피아가 이 땅에 도래했으니!"

통령은 기쁨에 소리쳤다. 나는 그 광경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떠오르는 건, 고작 이 시체굴에 불과하잖나."

비상은 멈췄다. 그는 선각자가 아닌, 포르말린 절임 사이에서 소리치는 광인에 불과했다.

그때, 쌍둥이 별이 돔을 부수며 낙하했다.

600m 반경의 유리조각들이 두 별과 함께 하늘에서 추락하고 있었다. 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령을 돌아봤다. 그는 손 안의 별빛을 들어올리며 진공관들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상실의 결실이 돌아왔구나! 우리는 상실마저 상실했다!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무한과 영원 아, 이리 오라!"

별들이 반짝. 하고 빛나자. 파도치던 은하수가 잘게 떨어져 부유하던 도시가 유성의 별빛에 섞여, 순식간에 회오리치며 빨려들어갔다. 작고 작은, 탁한 백색의 빛속으로...

어쨌거나. 의식은 저물었고, 죽음은 내게 손짓하고 있다. 사람은 죽은 채로 살 수 없으니. 이제 모두, 안녕히!

-그리고 무한한 정체를 향해,
명령, 다시 복종!

(극막이 오른다. 전구 인간들이 휘파람을 불며 박수친다.)

=====

[등장인물]

인간, 아기 천사들, 천사, 악마, 재판관

S#1-1막 1장.

인간 :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1)

나는 피와 살이 흐르는 산 자인가.

망자의 허물을 뒤집어 쓴 죽은 자인가?

시체처럼 비굴하게 살아가느냐.

당당히 하늘을 바라보며 죽어가느냐.

(하늘 한 귀퉁이에 별이 뜬다.

인간1. 그 별을 바라본다.)

인간 :

그래. 가자.

저 별의 끝으로 가자.

창공마저 밝게 비추는 저 빛에 닿으면 답이 보이리!

(새하얀 별은 고고히 빛나고 있다. 인간1, 별을 향해 간다.)

S#2-1막 2장.

(인간. 계속해 걷는다. 악마. 등장한다.)

악마 : 아. 이 불쌍한 것을 보아라.

자기가 가는 길에 무슨 결말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허망하게 죽음을 향해 걷고 있구나.

가엾다. 가여워! 작은 인간아. 내게로 와라.

내게 목숨과 영혼을 준다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주겠다.

1) 셰익스피어 - 햄릿 中

(천사. 등장한다.)

천사 : 사탄의 개야. 저 순례자를 유혹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그 지고한 분이 너의 죄를 살피고 계신다. 악마야. 네 죄를 안다면 물러가라!
그의 걸음 끝에는 그분의 왕국이 계신다.

악마 : (조소하며)
저 신의 종이 헛소리를 지껄이는구나.
내가 말한 신이라는 것이 운명을 창조하고,
저 가련한 인간과 고통을 창조한 자이거늘.
다시 그 위선자에게 저 어린 양을 보내라 하는구나.
인간아. 내게 와라! 솔로몬과 뉴턴의 지혜가.
다윗과 나폴레옹의 용기가 내 손 안에 있다.

(아기 천사들. 나타난다.)

아기 천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은총 내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
두려워하지 말라. 두 눈을 가리고,
이성을 무지로 가리고 걸어라.
네 앞에 황금 계단과 신의 은총이 있으니!
우리 함께 천당에서 노닐자꾸나.

아기 천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자애가 하늘에 넘치네!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진다. 인간1. 멈춰선다.)

인간:
옛 망령들아. 더 이상 나를 농락하지 말아라.
하늘에 정의 없고, 대지에 도덕 없으니,
너희들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정의가 없어진 자리는 이상이 차지했고,
도덕이 파괴된 곳에는 질서가 사라났다.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고, 신은 죽었다!
더 이상 나를 농락하지 말아라!

(천사, 악마. 사라진다. 인간. 계속해서 걷는다.)

S#3-1막 3장

(별. 점점 커진다.)

인간:

길고 긴 터널을 지나니, 그야말로 선국(善國)이구나.¹⁾ 별이 가까워지고, 진리가 오고 있다.
정의와 도덕의 세상이! 무한과 영원이!
이 길의 인도자는 그야말로 신과 같고,
그 오묘한 지혜 헤아릴 수 없구나.
위대하구나, 그 현안아!

아. 별이 보인다. 그 지혜로운 별에 닿는다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리!

(지평선에서 빛이 난다. 인간. 기쁘게 달려간다.)

인간:(충격받은 목소리로)

이게 무엇이나. 다 낡은 목관이구나.
내가 진리라 여겼던 빛은 관 안의 전구였고,
지혜롭다 칭송했던 것은 허울뿐인 썩은 나무니.
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이나.
하늘에 정의 없고, 대지에 도덕 없다 했으나.
이젠 대지에 뜻조차 사라졌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1) 가와바타 야스나리 - 설국 中

(통령. 나타난다. 그는 정말로 이상적인 인간 그 자체였다. 오! 통령이시여!)

통령:

그것이 너의 뜻이고 정의다. 노예여,
주인 된 자로써 외치니. 별에 복종하라.
너는 저것을 향해 살아왔고,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시시포스여! 운명의 노예 된 인간아.
저 관이 너의 별이고, 이상이다.
본능에 충실해라!

이성이야말로 선악과다.
너도 곧, 복종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게 되리!

아기 천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통령의 지혜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지에 위대한 이상 가득하네.

육신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무한 된 이!
이름은 수천개요. 그 뜻은 별에 닿았으니!

그 중 하나는 통령이요.
그 중 제일은 시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령의 깊은 현안 헤아릴 수 없네!

(천사들. 막 뒤로 사라진다. 인간1. 고뇌한다.)

인간:

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정말 저 관이 나의 끝이란 말인가?
위대한 정의와 진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
통령의 말이 진실이고 그가 곧 이상이기예,
나는 결국, 짐승처럼 굴복하고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취해야 할 것이 아니다

자유와 도덕, 이성과 반성만이 인간을 인간으로 있게 해 준다.

끝없는 복종은 무리의 짐승이나 기계의 미덕!

나는 복종하지 않겠다.

저 거짓 별이 아닌, 하늘 위 북두칠성을 향해!

S#4. 2막 1장.

(시체들이 혀를 쭉 내밀고 밧줄에 매달려 덜렁거린다.)

재판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보편의 계약을 저버리고, 모두를 몰락시키려 한 죄.

그것은 죽음이 마땅하다.

허나 자비로운 통령께서.

네게 재판의 기회를 주셨으니,

유다야. 기뻐 찬양해라!

인간:

나는 유다가 아니다.

내게 더러운 오명을 씌우려 하지 마라.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나는 오히려 마르틴 루터에 가까울 테니!

(재판관. 망치를 내려친다. 구름 사이에서 밧줄이 내려온다.)

재판관:

그것은 법이 판단할 일!

죄인은 들어라. 너의 죄목은 둘이다.

첫째는 만인의 보편계약을 멋대로 어긴 것이요.

둘째는 세상 만인을 무한에서 유한으로 파멸시키려 한 것이다.

이 죄는 심히 크니, 그 입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인간:

만인의 보편계약이라니. 우습기도 우습구나.

인간 종의 자유를 강탈하고, 제 노리개 삼은 것이.

그 파렴치한 짓이 무슨 계약이란 말인가.

도덕은 너희 입맛대로 선별되어 파괴되었고,
정의는 존재조차 역사에서 지워버렸으니.
너희의 법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판관:
너야말로 우습기 짝이 없는 말을 하는구나.
자유를 일부 제약함으로 우리는 무한해졌고,
영원한 생명과 이상, 진보를 얻게 되었다.
그것을 위한 약간의 제약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인간:
그것은 무한과 영원이 아닌, 끝없는 정체다!
만인을 찰나 속에 속박시키며 얻은 이상은,
만인이 전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모순이다.
거짓 이상이 아닌, 운명.
그 아래 발버둥만이 인간을 성장하게 한다.
끝없는 억압 아래 진보는 없다!

재판관:(두려워하며)
이 자는 진실로 우리를 죽이고자 했구나.
유한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만인을 향한 학살과 같다.

통령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을 선사했거늘,
이 자는 그 혁신을 되돌리려 한다!
이것이 네 두 번째 죄요.
만인을 향한 몰락 시도다.
추악하구나. 추악해!

(बाट줄이 내려와 인간의 목에 걸린다. 인간. 항변한다.)

인간:
새는 떨어짐으로 날아갈 수 있고.
진화는 죽음으로 계속해 일어난다.
운명을 긍정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려 하는 끊임없는 투쟁.
몰락 없이는 성장도, 그 어떤 진보도 없다.

재판관:

그 누가 발전을 원했다 하느냐.

인간:(비웃으며)

너희가 그렇게 추종하는 그 거짓 신.

통령이 진보를 꿈꾸며 이 정체를 만들었다.

너는 스스로 네 주인을 모독하는구나.

재판관:

닥쳐라. 신성모독자야!

우리는 운명을 몰락시켰다.

공황과 죽음, 질병은 시시껄렁한 옛말에 불과하고, 오직 이성과 이상만이 존재하는 시대다.

보아라. 우리는 운명을, 불합리를 몰락시켰다.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이상이라는 신성 아래 복종.

그것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봐라!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모든 생산과 소비는 예측되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초월했고.

공황과 죽음, 빈곤은 사라진 구어로 전락했다.

남은 사회질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사라져라. 옛 사상가여.

너야말로 거대한 죄다!

인간:

아. 그 모든 것이 자유의 역압임을,

이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에 만든

거짓 신기루임을 모르는가!

대지에 자유 없고, 하늘엔 정의 없으니,

이 땅이야말로 생지옥이다.

인간도 아닌 것이 입맛대로 노예를 거느리고,

불합리한 명령에 복종하게 종마저 뒤바꾸니,

이것이야말로 소돔이요. 고모라다!

너희의 타락을 직시하라. 너희의 이상은 죽었다!

재판관:

사형! 사형이다! 유다야. 스스로 자결해라.

죄뿐만이 아닌 네 부끄러움마저 모르는 것이냐!

인간:

닥쳐라. 네 눈엔 이 올가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

내 목숨은 네게 달려있으니,

죽이고 싶다면 죽여라!

덜컹. 하며 유다가 미끄러진다.

창공에서 내려온 밧줄은 낚싯바늘처럼 올라가며

그것을 질질 끌고 간다.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열렬한 박수! 그리고 환호성!)

(조명. 모두 꺼진다)

통령:

이제 끝났다.

저 멍청한 자는 제 분에 못 이겨 스스로 죽었다.

그런데 어째서냐.

이 극이 왜 끝나지 않는 것인가.

인간. 극막 옆에서 나타난다.

통령:

너는 죽었거늘 어째서 다시 여기 온 것이냐.

무대에서 내려가라.

네 역할은 이제 없다!

인간:

그것을 누가 정의했는가.

이 무의미한 극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상을 향한 추구야말로 인간의 미덕이요.

내 이상은 이 지루한 극의 끝이다.

인간이 되지 못한 것아.

난 너의 위선에 복종하지 않으리!

통령:

내가 미쳤구나.

명령하니, 내게 복종해라!

너의 의무에 충실해라.

인간:그것은 내가 정할 일!

통령: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무한한 진보를 주었다. 만인의 이상이 이 끝없는 대지 아래 있거늘! 복종하라. 내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곧 네 신이다.

인간: 아. 신을 부정한 것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구나! 추악하고 야만스럽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복종이 아닌 썩은 시체밖에 없다.

통령: 야만적이던 피의 자오선을 철의 자오선으로 뒤바꿨고, 고통과 필멸만이 가득하던 대지는 쾌락과 무한이 차지했다. 명령과 계약에 복종하라!

인간:아무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고, 아무도 계약을 원하지 않았다. 무력 아래 이룬 약속이 무슨 진실성이 있는가. 그것이 너의 독단이고 죄다.

통령: 내가 곧 시대요. 현존하는 무한이다! 개인이 시대 앞에서 대항하려 하는가!

(조명이 켜지고, 무대가 흔들린다.)

인간:너는 나폴레옹이 아니고, 시대 또한 아니다. 대지에 인간 없고, 이 푸른 별에 기계밖에 없으니. 시대를 정의할 자는 나 하나다.

시대는 내가 정의한다! 정체와 영원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죽음과 유한을 긍정하겠다!

=====

환상은 깨졌다.

통령은 나를 바라보며 합창하듯 외쳤다

""명령. 그리고 복종!"" ""명령. 그리고 복종! ""

통령 만세! 그리고, 다시 앵콜!

(모두 박수와 환호성!)

=====

(각본 7.52페이지로)

S#7. (영원과 무한의 도시에서)

통령:

명령에 복종하라. 내 자비는 이제 끝났다.

꿈을 잃었던 너는 사람이 아니며,

꿈을 되찾았기에 이상의 종도 아니다.

여기, 바로 무한이 도래했다!

(태양이 황도를 가로지른다. 달이 비상하며 태양에 부딪친다.

금빛 표면에서 흘러내리는 수은. 녹아내리는 금싸라기. 소리내며 타오르는 태양. 은하수마저
집어삼키는 뜨거운 열기!

그리고. 명령. 복종.)

대지에 가득하던 불꽃. 새처럼 나는 비행기. 그리고

진공관 안 두뇌. 질소. 아르곤. 실리콘. 다시 질소. 아르곤. 실리콘.

태양이 일렁인다. 계속해 타오르며 일렁인다. 빛이 퍼 지며. 그리고 다시 타오른다. 끝없이,
끝없이. 백연과 빛줄기. 빛이 늘어지며. 늘어지며. 환희에 차올라 타오른다!

통령: "명령에 복종하라."

빛나는 수천수백의 진공관. 온 세상에 퍼지는 그 찬란한 빛!(함성) 내 손 안의. 새하얗게 빛나
며 녹아내리는. 뇌들이여.

그 순수는 아이요. 지혜는 현자니. 무한이 황도 아래 도달했다! 떠오르는 수은의 달과. 달과.
달과 함께! 오. 루나틱!

S#.8.9999.통령 외친다. "여기 무한이 오리."
(떨어지는 황도. 그리고 환호성!)

-아아아. 아름답구나!

S#707.

1장 2절. "영원" 있으라. (별. 대지에 낙하한다.) 대지에 충실하라! 대지에 충실하라! 대지에 충성을. 충 성. 그리고. 명령. 복종.

빛, 질소와 아르곤, 깨진 전구. 필라멘트와. 같이 찬송. "이상을 향해!" 계속, 계속!

S#799. 구리의 뇌, 쇳물의 피. 나 기꺼이 들어올리며 외친다. 이것이 나의 정의요. 도덕이다!

충성. 명령. 복종. 쌍둥이 흥성. 태양과 달. 이상. 영원. 말하니 "이루어졌다." 빛. 빛. 그리고. 또 다시 빛!

S#.제 8막 ∞ 장.

모두 외치니. 무한이 도래했구나! 통령 만세! 충성. 복종! 우리의 눈을 감을 수 없게 하는 찬란한 이 과양휘!

통령 : 아름다운 시대여. 영원히!

그리고, 콜트. 불을 뿜다.

이제. 커튼콜!

=====

S#0. 8막 0장.

무한의 연극은 막을 내렸다. 통령이 꿈꾸던 무한과 영원은 고작 총알 하나에 무너질 정도로 불안정했다.

"다 끝났다. 이제 이 웃기지도 않는 촌극은 끝났어."

통령은 손 안에서 아스려지는 태양을 멍하니 응시하더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래. 우리는 무한을 잃었지. 하지만 영원이 여기 있으니!"

그의 목이 비틀렸다.

통령에게 남아 있던 일말의 인간성이 사라지며, 그의 머리는 거대한 전구가 되어 빛났다. 사방의 진공관은 빛나며 입 모아 소리쳤다.

"명령. 복종."

"명령. 복종."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현존하는 이상이자, 만민의 선지자다."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수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거대한 울림과 광휘 속에서 나는 죽어 있었다.

"명령에 복종하라. 우리는 시대정신이자 이상이다. 어찌하여 시대와 맞서려 하는가!"

땡땡땡! 종이 울릴 때마다 내 자아는 수시로 죽어 갔다. 그 때마다 이상과 도덕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낡은 시대는 저물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국가이자 신이다! 우리가 곧 정의며, 곧 도덕이다! 이상에 충실하라!"

땡땡땡땡! 종소리는 빨라져 갔다. 나는 금방이라도 쓰러지려는 몸을 붙잡고 총을 들어올렸다.

"신은 죽었고."

공이가 노리쇠를 쳤다. 붉은 불꽃이 총구에서 뿜어져나왔다.

"너희가 꿈꾸는 이상은 내 것이 아니다."

땡땡! 3001년을 알리는 종이 경쾌하게 쳤다. 진공의 납골관들이 깨지며, 영원히 멈췄던 시대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한과. 영원을 위해. 명령에 복종하라."

"그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총알 하나가 사라지며, 낡은 뇌 하나가 바스라졌다.
전선이 끊길수록 전구는 점차 흐려져 갔다.

"통제란 정의고, 복종은 도덕이다. 그것 없이 진보가 없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가!"

"그런 것이 이상이라면, 나는 그 이상을 버리겠다!"

그것은 뇌의 삼투다. 순수성이 낮은 뇌는 채액 대신 쾌락에 절여져 판단과 이성을 잃어버린
다.

하지만, 꿈을 지닌 것은 다르다.

뇌의 삼투. 순수한 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에 쉽게 스며든다. 이상과 꿈의 농도는 그야말로
순수한 결정과도 같아. 채액, 그리고 쾌락과 비교해도 제일의 농도를 자랑한다.

그렇게 꿈을 한번 꾸기 시작한 자는 평생을 꿈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통령 또한 그랬다.

순수한 이상을 꿈꾸기 시작한 기계는 멈추지 않았고, 무한과 영원을 손에 넣었다.
그 꿈이 불완전하고 영원하지도 않는 걸 앞에도,
끝없는 탐욕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얻었다.

"너는. 모두를 몰락시킬 것이다. 내가 죽음과 고통을 없애고 영원을 가져왔거늘!"

통령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낙타처럼 사느니, 아이답게 사는 것이 옳다. 그것을 위해 몰락과 죽음이 필요하다면, 나는 도덕과 정의를 버린 이상을 몰락시키겠다!"

도덕은 죄로부터 규정되고, 정의는 인간성의 몰락으로부터 태어난다.
통령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니, 그 속엔 고장난 기계 하나가 있었다.

"무한과 영원이여! 여기에 오라!"

통령이 외쳤다. 땡땡땡!

-S#1.1장 1..

총알이 영구기관을 뚫었다. 남아있던 전류가 흘러나오며, 통령은 힘없이 쓰러졌다.

통령이 가진 인간성은 모두 사라졌고, 이상이 가져다 준 기적과 지혜도 그에게서 떠났다. 이제 통령은 초인도, 철인도 아닌 그저 미친 기계로 몰락하고 말았다.

"명령. 그리고. 그리고..."

통령은 깨진 관들을 향해 기었다. 한번 꿈틀거릴 때마다 검은 기름이 질질 새어나왔다.

"명령에. 명령에.. 무한과 영원. 비상과 이상을 위해... 아. 아름다운 두 별이여!"

그것은 간절히 소리치고는, 부르르 떨다 멈췄다.
유리관 안에서 반짝이던 뇌들은 그 빛을 잃고 창백한 덩어리로 돌아갔다.

통령은 죽었다!
그의 이상은 날개가 꺾였고, 멈추었던 시곗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31세기의 해가 떠오른다. 저 유리 돔 아래에서. 금과 구리로 만든 허울뿐인 거짓 태양이 아닌, 따스한 생명의 빛이 떠오른다.

이제 정체는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

멋진 신세계다!